전법 일기

동아리 고난, 내리사랑으로 극복

선배 자비행은 동아리 전통됐다

인제대 중앙동아리로 불교 동아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2019년, 첫 시련이 닥쳤다. 2018년도부터 동아리 회원들의 동아리 행사 참여 증진을 위해 정기법회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저녁공양을 제공하며 법회에 오는 재미를 붙여봤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이런 좋은 취지를 지역 사찰 스님들께서도 알아주셔서 소정의 지원을 해주시기도 했다.

이 같은 루틴들이 만들어지던 어느 날, 2019년 개강법회에서 일이 터졌다.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동아리 회원들이 법회에 참석했지만, 정작 회장인 필자는 몸이 좋지 않아 임원진에게 저녁공양을 부탁하고 자리를 비우게 됐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회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지 의사전달이 잘못돼 해당 식사 자리에서 중앙동아리 등록비로 학교에 납입해야하는 예산까지 모두 사용하게 됐던 것이다.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하는 비용까지 써버리게 되니 당황스러움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전 동아리 환경 조성에 곁에서 도움을 주셨던 동아리 선배님에게 연락했다.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 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드렸던 전화인데, 선배님은 긴 고민 없이 "남주야, 걱정하지마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라는 말을 해주셨다.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돈을 모아 동아리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다. 동아리 재정 관리를 잘못한 후배 회장을 나무라도 모자란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선배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막 전역한 복학생이었고, 선배들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음에도 크게 마음을 내준 것이다. 아마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후배 회장에게 안타까움을 느껴 선배님들도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자비(慈悲)에서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낙(樂)을 주는 것이고,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중생의 고(苦)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님들이 행동은 자비의 실천이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행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젠 5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머리와 마음에 단단히 기억돼 있다. 나 역시도 꼭, 어떤 상황에 후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흔쾌히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인제대 불교학생회는 선배에서 나, 나에게서 후배, 그리고 후배의 후배로 내리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작은 해프닝에서 시작된 자비행은 한 동아리를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 '자비'로 장엄하고 있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우리'란 말에는 '佛性'이 담겼다

독일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내 좌석은 창문 쪽이라 미리 앉아 있는 옆 여행객이 일어나 들어가라는 제스처를 지었다. 나는 그에게 목례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서로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서는 여행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나와 그는 말없이 하늘을 날았다.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것도 인연인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말없이 가야 하는지,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먼저 옆에 앉은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영어가 서툴고, 독일에서 환승하여 바르셀로나로 가야 하는데 환승시간이 짧아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내 티켓을 보여 달라더니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승무원을 불러 유창한 독일 말로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알려 주었다. 지금까지 냉랭했던 사람들이 가깝고 친근한 사이가 되어 베를린 공항에서 헤어질 때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그 젊은이와 나는 우리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우리는 객체적인 관계를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란 타자성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타자성이란 내 인식이나 이해의 바깥에 있는, 알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게 된다. 너는 이제 타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존재요, 나는 너의 존재가 된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림 · 최주현

꽃을 보면 꽃이 될 수 있고, 산을 보면 산이 될 수 있어야 우리라 할 수 있다. 꽃을 보아도 꽃이 아니고,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면 어찌 우리라 할 수 있겠는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을 수 있어야 우리라 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 네가 되는 것이 우리다.

자식이 없으면 엄마가 될 수 없고, 꽃이 없으면 꽃밭이 될 수 없듯, 이웃 없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야 부부가 될 수 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서로의 마음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고, 상대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부다. 아내 없는 남편, 남편 없는 아내는 부부가 아니다. 너 없이 있을 수 없는 나, 부부에게는 내가 없고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본래부터 절대 마음인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절대 마음에 비춰보면 나와 너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는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이며 어떤 경우에도 불성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다. 우리는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緣起) 법에 따라 나투어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는 것도 너라는 것도 없는 무아(無我)라는 것이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런 말은 복수를 표현하는 뜻이 아니다. '우리'에는 나 아닌 네가 있고, 너 아닌 내가 있다. 즉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불성만이 가득한다. 불성이 빛나는 우리의 밝은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준다.

〈작가〉

기자칼럼

복날 채식으로 복 지어 볼까요?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라 불리는 복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올해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다.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켜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한 복판을 세 번의 복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부터 복날에는 보신(補身)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서 먹었다. 된장을 푼 국물에 개의 고기를 넣고 양념해서 끓인 개장국, 닭의 고기로 만든 삼계탕 등이 그것이다.

반려동물 문화의 증가와 급변하는 생태, 기후위기 이슈 등으로 최근 육식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신을 위한 음식 대신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몇 해 전부터 불교환경연대가 육류로 만든 보양식 대신 한달 간 채식을 지향하자는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실천 내용은 첫째, 복날에 육식 대신 채식을 하고 둘째, 빈 그릇 운동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을 것. 셋째, 지속 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 등이다. 또 채개장 만들기, 팥죽 나눔 등으로 채식을 권장하고 홍보한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오계의 으뜸인 불살생계,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계를 이해하고 삶의 지남(指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날 채식 캠페인에 동참해 채식을 활용한 복날 식문화를 불교계가 이끈다면 이는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기회이자, 불교 가르침을 일반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복날 채식 식단을 개발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불살생계를 평소에는 꾸준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올해 복날엔 보양식 대신 채식으로 복 짓는 건 어떨까? 건강한 채식을 통해 복날에 몸과 마음을 챙기고 지구도 살리는 여름을 만끽해보자.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